

하늘 분화구, 솜반내 용천수 사시사철 천지연으로 유입

제주의 물이야기
물의 도시, 서귀포

<7> 천지연 폭포수는 어디서 왔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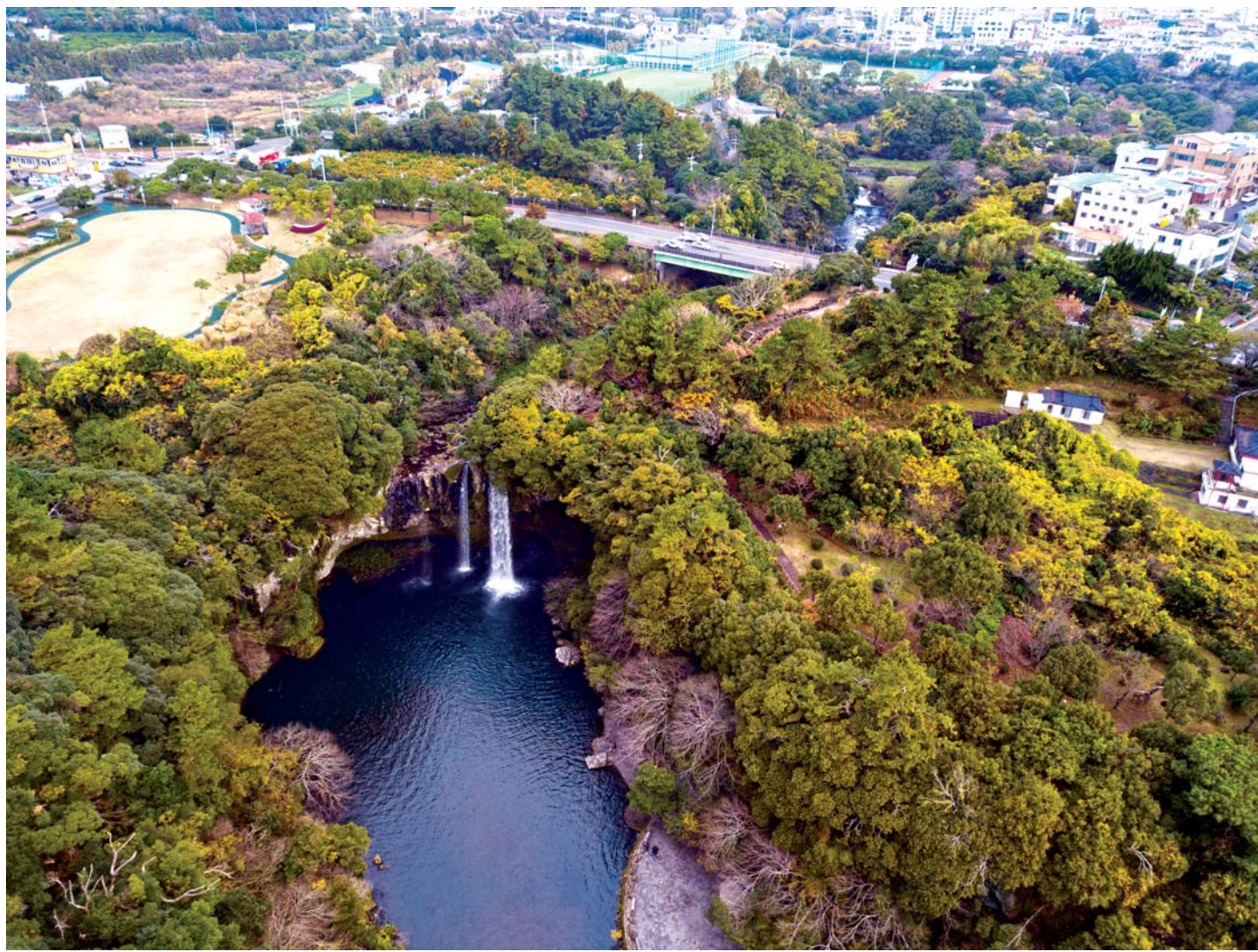
천혜의 비경 품은 천지연 하구
원류는 상류의 풍부한 수자원
‘물의 도시’ 서귀포의 보배

미항인 서귀포항과 새섬을 잇는 새연교, 새 섬과 문섬, 섬섬, 범섬이 마치 징검다리처럼 줄지어 있는 곳. 천지연 하구의 광경이다. 흑자들은 이탈리아 남부에 나폴리가 있다면 동방의 대한민국엔 서귀포가 있다고 비유하곤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취재자 나폴리를 찾았던 기억을 되살려 비교해도 천지연 하구는 천혜의 비경을 품고 있다. 바로 연외천이다.

연외천은 서귀포 시내를 서쪽으로 끼고 돌아 천지연폭포를 거쳐 서귀포항으로 이어진다. 동쪽에 이웃한 정방폭포의 동홍천 줄기와 더불어 서귀포 도심의 중심 하천이다. 서귀포 원도심을 물의 도시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연외천과 동홍천 하구 때문일 것이다.

연외천 하구 천지연 폭포수는 어디서 왔을까. 2001년 5월 한라일보 대기기획 하천과 계곡 탐사차 이곳을 처음 답사한 이래 여러 차례 이곳을 찾았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김완병 박사 등의 주도로 2016년 하천탐사보고서 ‘연외천의 원류를 찾아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연외천은 ‘효돈천 인근 쌀로름(미약) 북서쪽 해발 600m 지점에서 발원해 제2산록도로를 가로질러 서귀포시 서흥동, 솜반천, 천지연폭포를 지나 서귀포항에 이른다’.

연외천은 크게 다섯 갈래로 발원해 남류하다 ‘솜반내(솜반천, 선반내)’에서 하나로 합쳐져 천지연과 서귀포항으로 이어진다. 그 다섯갈래는 원제천(호근동), 호근천(호근동), 서흥천(서흥동), 생수천(서흥동), 연외천(서흥동, 서귀동)으로 하천을 끼고 있는 마을에 따라 고유지명이 달리 붙는다. 본류는 연외천인 것이다. 본류 연외천과 호근동에서 내려오는 호근천이 합류



연외천 하류. 걸매생태공원과 천지연, 서귀포항으로 이어지면서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경관을 보여준다.



하늘분화구 전경(사진 위)과 풍부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는 하늘분화구 용천수. 강경민작가

하는 지점이 서귀포시민들에게 더위를 달래주는 솜반내이다.

물의 도시 서귀포 중심 하천 연외천의 주요 수자원이자 핵심 키워드는 위로부터 솜반내, 걸매생태공원, 하늘분화구, 천지연폭포, 서귀포항을 꼽을 수 있다.

서귀포에서 바라본 한라산은 그 품에 70리의 꿈을 껴안고 있다. 지난날 웅기종기 초가가 들어섰던 자리, 돌발레와의 자리에 아담하게 가꾸어진 전원도시. 세계적 관광도시 서귀포의 색깔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곳이 천지연이고 그 하류에 살포시 자리잡은 항구가 바로 서귀포항이다.

서귀포를 수전포(水戰浦)라고도 했는데, 항구가 매우 넓어 절벽을 의지하면 수백 척의 배를 감춰둘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연외천의 하구는 바로 서귀포항이다. 서귀포항 맞은편에 파리를 틀고 있는 무인섬이 새섬(조도)이다. 섬을 잇는 새연교가 가설돼 명소가 됐다. 길이 169m, 최장 높이 45m, 폭 4~7m의 새연교는 2009년 9월 완공됐으며, 제주의 전통 고기잡이 배인 테우를 형상화했다. 연외천 하구

유람선 선착장은 고래공장터였다. 이곳에서 서쪽 해안 절벽지대가 바로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이다. 천지연 하구와 패류화석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명소로 지정돼 있다.

서귀포의 자랑인 천지연 주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만 모두 세 곳이다. 난대림지대, 담팔수 자생지, 무태장이 서식지다. 이곳을 조사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무태장어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연중 물이 마르지 않고 수량이 풍부한 천지연 계곡에는 바다로 흐르는 물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던 수력발전소가 있었다. 제주도 최초의 발전소로서 200kW급 수력발전설비 1기가 1943년 11월에 준공돼 1972년 7월까지 약 29년간 가동됐다.

1970년 3월 1만kW급 제주화력발전소의 준공으로 인해 제주 지역의 전력사정이 개선되고, 천지연폭포의 경관보존을 위해 1972년 7월 21일 발전을 중단한 뒤 1974년 1월 철거됐다. 일제 강점기에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서귀포와 남제주

군 일대에 전력을 생산해 공급했던 유서깊은 유적이다.

천지연 상류에는 ‘하늘’이라는 비경이 감춰져 있다. 천지연폭포 북서쪽에 위치한다. 눈이 많다는 데서 유래했을 정도로 수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동서 방향 1.8km, 남북 방향 1.3km의 우리나라 유일의 마르(Maar·분화구 바닥이 지표면보다 낮은 화산체)형 분화구로 ‘오름의 왕국’ 제주도에 서도 가장 규모가 큰 분화구로 알려져 있다. 분화구는 5만년 가량 퇴적물이 켜켜이 쌓여 보존된 곳으로, 수만년 전의 고(古)환경의 비밀이 숨어 있어 타임캡슐로 불린다.

하늘은 서귀포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 중 하나다. 이 곳의 분화구 원형을 생태복원해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권고사항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됐을 정도다. 하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분화구 주변에는 동인새미, 첫인새미, 물망수 등 용천수가 많다. 안내판에 따르면

물망수는 분화구 동쪽 지경 바닥에 위치한 용천수로, 샘의 면적은 260㎡ 규모이며, 용출량은 하루 최대 5000t에 이를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다.

이 용천수는 화구구에 격자모양으로 난 인공수로를 따라 논으로 유입돼 약 2만 6000평의 경작지에 주요 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논으로 흘러간 물은 하늘 분화구에서 가장 낮은 남쪽 화구벽의 수로를 통해 분화구 외부로 나가 천지연폭포로 이어진다. 수량이 풍부한 분화구 안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다음은 호근동에 거주하는 한 원로의 구술 증언 내용. “하늘에는 여러 곳에서 물이 나는데, 열 군데 이상 될 거예요. 논 밖에서 흐르는 물도 있고, 논 가운데서 나는 물도 있어요. 그러니 바둑판 모양으로 논골을 만들어서 물이 필요한 곳으로 물을 보낼 수 있었어요.”

강시영 제주환경문화원장(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추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국회의원



김한규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희현

도의원



박호형

비례대표의원



원화자

교육의원



강동우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일도2동 자생단체 회원 일동

주민자치위원장 이호성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장 현동수
민속보존회장 조창운

노인회장 장정일
방위협의회장 박경호
지역자활방재단장 오영진

통장협의회장 고광연
연합청년회장 김준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명석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권오진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한관섭
마을회장 백영종

새마을부녀회장 박은희
장애인지원협의회장 이순실